



東萊

부산동래로타리클럽
WEEKLY BULLETIN THE ROTARY
CLUB OF PUSAN DONGRAE

RI 會長 標語

“초아의 봉사”



SERVICE Above Self

RI 會長
칼·빌헬름 스텐애머

3660地區 總裁
우연·김원조

會 長	이 규 현
次 期 會 長	김 균
副 會 長	박 춘 배
總 務	이 동 근
財 務	유 근 복
奉仕프로젝트委員長	강 민 석
클럽管理委員長	정 태 훈
會 員 委 員 長	안 장 현
로타리財團委員長	도 재 철
弘報委員長	은 중 균
無償所理事	김종규, 한상남
査察委員長	정 석 근
週報委員長	추 무 호

- 週會場: 허심청 2층 사파이어 룸 (水)
- 事務所: 釜山市 東萊區 善安洞593(善安B/D103號)
TEL.(051)555-3703 FAX.(051)556-0185

♣ 다공 이규현 회장 이임사 ♣



여름의 문턱에선 6월에 즈음하여, 저희 동래로타리 클럽 회장·이사임원 이·취임식에 함께하여 주신 국제로타리 3660지구 일두 정대현 총재지역대표님! 멀리 제주에서 오신 신제주로타리클럽 김수경

자기 회장님,회원님! 그리고 인근 클럽 회장·회원님! 또한 귀한 시간내어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본 클럽 목화회 회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임식을 맞이한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김원조 지구 총재님의 운영 방침 중에서 “로타리의 충실”이라는 기본 정신 아래, 지난 1년간 회장으로서 클럽을 위하여 얼마만큼 기여와 일을 했는지?

또한 클럽의 명성에 흠이 되지 않았는지?

저는 자괴지심을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 급회기 클럽의 조직이 개편 운영 되고 정관세척이 개정 되었으며, 몇가지 자그마한 변화속에서 사무국이 주회장 인근으로 이전되었고 클럽 장학위원장님의 주도하에 장학사업이 원활히 운영 지급되고 봉사의 이념구현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사회봉사사업에도 일익을 하였으며, 한편 으로는 클럽의 내실을 기하고자 나름대로 힘써왔습니다만, 저에게는 부족함이 너무도 많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한해를 같이하며 도와주신 임원,이사님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차년도 화산 신임회장님과 이사·임원님께는 축하를 드리며 보다많은 발전에 기대를 갖게하는 지도부임을 확신 하면서, 앞으로 이 자리의 모든 분들에게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행동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저의 이임사에 갈음합니다.

= 2006-07년도 첫 주회 안내 =

일시 : 2006년 7월 5일 (수) 12:30

장소 : 허심청 2층 사파이어룸

=> 7월 생신회원인신 정석근, 박성환, 정대기, 김종규, 김태운, 박춘배, 백선기, 김승희, 정태운, 안장현 회원님의 생신축하 파티가 2006-07년도 첫 주회로 개최 되었으니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하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동래로타리클럽은 명문 클럽이라고들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그리 믿고 있고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한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신흥 명문 클럽들의 화려한 웅비를 바라보며 부러움과 함께 과연 우리 동래 클럽은 명문의 위치를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회한에 쌓였습니다. 혹,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모양. 우리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

저들이 배 밑에 모터를 달고 맹렬히 앞서나가 고지에 깃발을 꽂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앞섰습니다. 언젠가 내가 회장이 된다면 잠에서 깨어나 캐트엔진을 장착하고 단숨에 앞질러 고지에 깃발을 꽂으리라. 하는 포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 차기 회장 시절 제트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준비하였고, 차차 하나둘 떼고 난후는 구체적인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행동하고 한편으로는 원로회장님 몇분께 자문을 구하곤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폴 해리스 로타리 창시자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라야 한다." 라는 경구와 함께 로타리는 선두를 지켜야하는 경쟁의 관계가 아닌 봉사의 이상을 어떻게 마음에서 우러나게 실현해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얻었습니다. 로타리를 십수년동안 하면서 저는 그것을 몰랐던가요? 알면서도 스스로 경쟁에 뛰어들고 싶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었던가요? 이상을 실현 한다는 것은 특히 봉사의 이상을 실현 한다는 것은 선두경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눈을 뜨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앞드려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이상을 실현하는 근간인 친목에 역점을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클럽 만큼 80세대에서 30세대까지 무려 50년의 연령 차이를 극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클럽을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로 회원들을 존경하고 신임 및 젊은 회원들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미래를 논 할 수 있도록 조금더 신경을 써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앞에 놓인 당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입회원, 그리고 아직 연륜이 덜하신 젊은 회원 여러분, 저는 우선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드리고 빨리 클럽에 적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하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갈등을 수도 없이 느끼며 이 자리에 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봉사의 이상 보다는 우리 클럽 식구들이 좋아 시간을 때우며 선배들 흉내만 내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선배님들이 이룩해 놓으신 업적을 기본으로 하여 따듯하고 정이 넘치는, 그래서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봉사의 대열에 같이 서며, 아직 왕성한 직업 활동을 하는 신입회원과 젊은 회원들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조화롭게 로타리 봉사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맥을 이어갈 새 식구를 더 많이 모시는 일에 몰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체에 와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 까지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바뀌다 보니 로타리도 바뀌었고 그러니 물론 홍보 쪽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입 및 젊은 회원 여러분의 시대에는 지금과 또 다른 사회관과 로타리 가치관이 형성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지금과 다르다 해도 봉사의 이상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화학적 일체감을 이루고 따듯하고 화기에매한 가족애가 충만한 클럽이 되어야만 오늘과 내일 다 같이 좀더 쉽게 봉사의 이상을 실현 하는 일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래 로타리 클럽의 미래를 짊어진 여러분의 시대가 왔을때 좀더 이상에 다가간 시대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이 오늘에 있다고 보고 저는 1년동안 동래 로타리 클럽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께 온전히 넘겨 드릴 수 있도록, 저의 미거한 힘이나마 완전히 소진 될 때 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情 景 ★



이취임식 시작 전..



자리를 빛내주신 목화회



1년간 수고해주신 이사·임원



바둑동호회 결승 시상중..



신·구 사찰단 인수,인계



신임 이사·임원 소개 중.



이임회장님께 공로패 증정.



신·구 회장,총무님께
목화회에서 꽃바구니 전달.



자매클럽 신제주 RC
김수경 차기회장님 축사 중.



일두 정대현 제10지역구
총재지역대표님 축사 중.



역대 회장,내빈과 축하의
맘으로 케익 커팅 중..



아마빌레 색소폰 오케스트라
의 멋진 공연...

♥ 내빈 소개 ♥

3660지구 제10지역구 총재지역대표 일두 정대현
 3660지구 제12지역구 총재지역대표 송파 김길용
 3660지구 제 10지역구 차기총재지역대표 지산 김태운
 동부산 스폰서 로타리클럽 회장 가원 전환수
 신제주 로타리클럽 차기회장 후암 김수경
 오른쪽로타리클럽 차기회장 연남 김인숙
 중앙 김해로타리클럽 봉사프로젝트위원장 조대현
 연산 로타리클럽 차기 회장 이수형
 오른쪽로타리클럽 차기 회장 현남 김인숙
 신제주 로타리클럽 > 차기 부회장 박기수
 차차기회장 김창준
 차기 총무 영운 장행우
 차기 홍보위원장 고종철
 동부산 로타리클럽 총무 차재현
 해운대 로타리클럽 차기회장 청양 안상익
 새금정 로타리클럽 회장 후송 최봉개
 총무 은옥 김용환
 전회장 송암 백학수
 내성 로타리클럽 회장 영국 정중원
 차기회장 동천 이종진
 차차기회장 원강 방정혁
 전회장 일승 김준태
 부산은행 총수 이장오 은행장
 전 현대미포조선 김종운 부사장
 부산대학 ROTC 총동창회 박기제 회장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성영외과 김영환 의학박사
 전 부산지방 국제청조사 1국장 경제학박사 서경식
 산수의 이재규(부) 최연학(부) 김용채
 아마빌레 색소폰 오케스트라 서성빈 회장 외 단원

♣ 축하금 ♣

신제주 로타리클럽 10만원
 새금정 로타리클럽 10만원
 오른쪽로타리클럽 10만원
 연산 로타리클럽 5만원

♣ 축하 화환 ♣

동부산 로타리클럽 1점
 해운대 로타리클럽 1점
 내성 로타리클럽 1점
 부산백병원 김영환박사 1점
 부산 ROTC 총동창회 1점
 산수의 회원일동 1점
 부산은행 이장오은행장 1점
 (주)인탑대표 이재규 1점
 (주)LG화학대표 김만석 1점
 한국투자증권사무 김병태1점
 북부경찰서장 오경중 난 1점
 의형제일동 꽃바구니 1점
 성마로아동요양원 화분1점

[출력소식] 동래로타리클럽 장학문화회 2004-06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일시 : 2006년 6월 28일 (수) 18:30 / 장소 : 동래 로타리클럽 사무국
 =>장학문화회 회원이신 정암, 유천, 은국, 여죽, 만해, 계산, 우당, 소담, 일목, 백민, 청포, 정봉, 남용, 지산, 청림, 소정, 다공, 화산, 윤천, 승현, 총극, 총경, 현암, 민수, 조정규, 경암, 최수기 회원님께서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2004-06년도 정기 총회에서 결산 보고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班	班長	班				員				%					
1班	김종덕	출	피영주	출	박동규	출	서영빈	婦	박준배	婦	피영규	출	고은희	출	100
2班	이수현	婦	윤기보	婦	김군	婦	손경호	免	최석우	출	김병태		이종규	출	57
3班	최주수	출	정성근	출	김영표	免	이동균	婦	강진규	출	정택훈	婦	안영철	출	100
4班	김광환		박성환	출	한상남		백성기	출	김승희	免	노우용		임상문	출	57
5班	손관식	출	정등문		곽포용	免	최무호	婦	김성우	婦	유근복	출	김경부		71
6班	박동연	婦	정대기	출	김태운	婦	문진상		강민석	출	윤종관	婦	이상포		71
7班	임봉규	출	김종규	婦	김암우	출	이규현	婦	전석호	출	최수기	婦			100
8班	오윤	출	성훈업	婦	배도식	출	이재인	婦	최이호	婦	이성재				67
9班	최상용	출	김영우		안정현	출	석형근		도재철	출	이남근	출			67

總會員 : 60 / 出席會員 : 44 / 出席免除 : 6 M : 0 / 平均出席率 : 84%